‘사오정’은 ‘계·정·혜’ 삼학 … 깨끗한 마음 성취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㉚ 유사하를 건너는 삼장법사 일행

그림 · 최주현

황풍요괴를 물리친 현장법사 일행이 드디어 유사하(流沙河)에 도착하네요. 유사하는 글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흐르는 모래의 강’이라는 뜻이지요. 또 유사하를 약수(弱水)라고도 하는데, 약수는 신선이 사는 곳에 있는 강이라지요. 부력이 약해서 거위 털도 가라앉는다던가요? 이 유사하는 사막을 강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래가 흐르는 강이라는 것이, 큰 사막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말이지요. 또 사막에는 정말 흐르는 모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여 거기 발을 디디면 자꾸 빨려 들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모래의 강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으신가요? 견문이 넓으신 분들은 분명 고개를 주억거리실 거 같네요. 그런 사막의 무서운 일면을 유사하로 그렸을 수도 있고, 또 서유기가 수행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신선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약수를 여기 배치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 정말 난감한 강입니다. 폭이 800리나 된다고 하니, 탈 것이 없으면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데, 거기에 부력은 약해서 거위 털도 가라앉는다 하니 배를 만들 재료를 구할 길도 없는 것이지요.

엎친 데 덮친다더니, 그 유사하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일행 앞에 물속의 요괴가 나타나 현장법사를 잡아먹으려 덤비네요. 아주 흉악하게 생긴 요괴가요. 서유기는 이 요괴를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머리는 온통 화염처럼 시뻘건 털로 더부룩하고, 방울 같은 두 눈 등불처럼 빛난다. 검지도 푸르지도 않는 푸르딩딩 칙칙한 얼굴에, 우레 같고 북소리 같은 용의 소리를 낸다.”

상상이 되시나요? 거기에 목에는 아홉 개의 해골을 걸고 있네요. 그리고 보배로운 지팡이를 휘두르는 정말 위풍당당한 요괴……. 그래봤자 지금은 유사하의 물귀신이군요.

앞에서 예고도 해드렸고, 아홉 개의 해골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 이게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지요? 사오정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미리 예비해 놓은 현장법사 모시고 갈 수행원이죠. 그런데 그런 내력을 밝힐 사이도 없이 싸움이 붙어 버리네요. 우선 저팔계하고 한바탕 드잡이 질을 하는데 손오공이 몸이 근질거려 여의봉 추켜들고 힘을 함하니, 요괴가 기겁을 하고 물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속으로 달아나 버리니 정말 무슨 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선 손오공은 물속에 들어가는 술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물고기나 물벌레 등 물속에 사는 생물로 변신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서 싸움까지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팔계는 전직이 은하수를 다스리던 천봉원수라 물질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맨 땅에서 싸우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으니, 요괴와 승부가 나지를 않습니다. 손오공이 꾀를 내어 저팔계에게 요괴를 땅으로 유인하게 하지만, 그게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면 물속으로 줄행랑을 쳐 버리니 정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가 없으니 또 보살님 찾아뵈어야겠지요? 그래서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남해로 관세음보살님 찾아뵙습니다.

그런데요, 이쯤해서 여러분들 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손오공은 천상세계까지 어지럽히고, 여러 신장들도 감당이 안 되어 결국 석가여래의 법력으로 잡아들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웬 요괴들이 이렇게 대단합니까? 손오공 정도의 실력이면 어지간한 요괴는 그저 여의봉 한 대씩 앵기면 끝날 것 같은데……. 여행 출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계속 관세음보살에게 원군을 청합답니까? 황풍요괴는 영길보살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보살님 도움 없이는 요괴 물리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지요. 손오공이 갑자기 실력이 준 것인가요? 아니면 요괴들이 갑자기 세진 것인가요?

자력과 타력신앙이 함께 드러나
성냄의 파도 가라앉혀
번뇌의 유사하를 유유히 건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 대부분의 요괴들보다 손오공이 더 세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서유기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요괴들이 힘이 달리면 소굴로 숨어버리고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굴이라는 것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코다치기 쉽다는 겁니다. 똥개도 자기 동네에선 어쩐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나 저팔계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오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귀신이 물속으로 달아나니 잡아내기 힘들어 지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의 측면은 서유기가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조화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일반적으로 자력수행이라고 하지만, 타력의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보살에 대한 깊은 신심과, 그분들의 가피를 간절히 구할 때 정말 큰 가피력이 내린다는 것이지요. 자력이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불보살의 큰 원력과 가피력을 깊이 믿고, 그분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마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로로 하여 그분들의 가피가 내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피력에 힘입어 우리는 멀고 먼 부처되는 길, 불국토 건설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유기에서 계속 보살의 도움을 통해 난관을 헤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타력신앙의 측면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불교의 타력신앙적인 측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타력신앙과 그것에 바탕한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불교의 기도는 단지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의 위신력이 나에게도 옮겨오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감응도교(感應道交)라고 하던가요? 기도하는 이와 기도를 받는 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불보살의 위신력이 깃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이에게, 천수천안의 위신력이 깃들게 되면 자연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도 손오공이 힘들 때마다 보살님께 응원을 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힘들 때는 마치 어린 사람이 힘들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듯이 부처님께 자연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손오공이 관세음보살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관세음보살님 야단을 치십니다. 왜 인도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일행이라는 이야기를 안했느냐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아뢰니, 관세음보살님 납득을 하시고 제자 혜안존자를 파견해주십니다. 사오정 불러내어 현장법사 수행하게 만들고, 또 사오정이 목에 걸고 있는 해골로 배를 만들되, 이것을 중앙에 배치해야 된다 하시면서 붉은 조롱박을 하나 주시고요. 그 해골이 어떤 해골인지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이 신기해하시는 나칠계님! 그렇게 처음 듣는 듯이 신선해 하시면 이야기하는 제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좀 기억을 하셨다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요. 흐음, 나칠계님 빼고는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니 간단히 상기만 하고 넘어가지요. 그것은 인도로 법을 구하러 가던 스님들의 해골이었지요? 모든 것이 다 가라앉는 유사하에서, 그 해골들만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유사하에서 몸은 죽었지만, 그 진리를 구하는 뜨거운 열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라앉지 않는 해골로 상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법사 일행은 바로 그러한 앞선 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배로 삼아 타고, 모든 것이 가라앉는 유사하를 건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살님이 내리신 붉은 호리병, 색깔도 붉다 하니 한 조각 붉은 마음 – 일편단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살님의 가피를 구심점으로 하여 인도를 향하다 몸이 쓰러진 앞선 구도자들의 뜨거움 마음이, 유사하에 배가 되어 두둥실 떴습니다. 그분들보다도 더 뜨거운 뜻을 지닌 현장법사 일행이 그 배위에 올랐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앞선 분들의 고귀하신 뜻을 배로 삼아, 불보살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험한 고해를 헤쳐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앞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서유기의 주인공들이 이제 온전히 다 모였습니다. 현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용마……. 이제 정말 온전한 팀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온전한 팀이 처음부터 팀워크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벌써 저팔계하구 손오공은 손발이 잘 안 맞는 대목이 슬슬 나오고 있구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예감~. 그래도 사오정은 저팔계처럼 속 썩이는 일은 별로 없는 존재지요? 말귀 어두운 거가 문제라고요? 애고, 아니라니까요~. 서유기 원전에는 사오정 말귀 어둡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요. 그저 무난하게 잘 따라오는 사오정이라니까요~. 실은 너무 무난하다 보니 사오정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팔계는 인간 마음에 있는 탐욕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사오정은 그렇게 뚜렷한 연결점이 없어요. 일단은 손오공은 마음 전체를 대표하면서, 어리석음과 지혜라는 양면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저팔계는 탐욕과 계율이라는 측면을 상징하는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사오정은 성내는 마음과 삼매의 마음이라는 측면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요. 바로 탐(貪),진(瞋),치(癡)의 삼독심(三毒心),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과 연관짓는 것이지요. 유사하의 물귀신이라는 것에서 사(沙)라는 성을 만들고, 맑음을 깨닫는다는 뜻인 오정(悟淨)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정(定)을 통해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서 맑게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냄의 파도를 가라앉혀 맑고 깨끗한 마음을 성취하는 사오정이라……. 그림이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나가면서 차츰 정체를 분명히 파악해 보기로 하지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사찰 난방연료비 걱정 끝…

자체개발 공병 화목난로 (특허출원 중)

요사채, 공양간 등 대중이 모이는 어디든 사용 가능 합니다.
신도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일반난로와의 차이점

- 적은 나무로도 오랜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화목난로의 1/3)
- 3단형식으로 빠른시간안에 난로가 가열된다.
- 불조절이 쉽고, 재가 적게 남는다.
- 쉽게 불을 지필 수 있고, 청소도 용이하다.
- 파이프를 통한 열을 발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 오븐을 이용 고구마, 밤, 감자 등을 구울 수 있다.

◆ 운송과 설치는 별도입니다.
◆ 네이버에서 「공병조형연구소」검색 하세요. 다양한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자료와 정보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공병조형연구소
010-3774-5806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